



커피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희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문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일자리 창출·투자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집결한 기업인 130여명 앞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하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

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용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연을 키우고 임직원들과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세금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기업인들의 보람이자 애국의 방식”이라며 “(기업들이)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

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앞날을 향해 뛰어가는 기업들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의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소촌동 광주공장 옮긴다

이전 부지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빛그린산단 검토
송정역 인근 39만㎡ 공장 부지 활용 방안 최대 관심사

금호타이어가 광주 소촌동 광주공장을 옮긴다. 공장 부지가 옮겨가는데 따른 39만㎡가 넘는 송정역 인근 공장 부지 활용 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공장 이전 부지로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인 빛그린산단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금호타이어는 1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미래에셋대우, 광주시 등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 송정역 인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광주공장을 최첨단, 친환경, 신설비를 갖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미래에셋대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공장이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자금 조달방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로서는 광주공장 도시계획 변경 및 공장 이전 사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투자자로 나설지도 관심

이 쏠린다.
금호타이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장 이전 여부를 확정된 뒤 적당한 부지를 모색, 첨단·친환경 설비를 갖춘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전 부지로는 빛그린 산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과 공장부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현재 광주공장 인근 송정역 일대는 KTX와 SRT 개통, 투자선도지구 지정, 선운 2지구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정부가 최근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송정역 일대는 지난해보다 평균 22%가 상승, 광산구 평균(10.3% 인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송정역 앞 상업지역 땅값도 3.3㎡당

1500만원이던 호가가 3000만원으로 뛰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를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측은 일단, 모든 부지 개발수익을 신공장에 재투자하는 한편, 생산규모 및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만 가득 찬 전원일촌적인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 한전공대 설립 취지 돌아 봐야 乙이 된 지자체 지나친 부담은 안 돼

부지선정 출혈경쟁 불가피
한전 투자·정부 지원 절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의 부지 선정을 앞두고, 에너지 관련 세계 최고 인재 육성을 통한 한전 미래 성장동력 마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중심 명문대학 조성 등 당초의 설립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 조성만이 아니라 설립·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역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전공대 지원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이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전 차원의 꾸준한 투자, 범정부적인 지원, 지자체의 성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전의 용역사가 구성한 ‘입지선정 전문가위원회’의 한전공대 부지 선정 배점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입지여건 등을 주로 살피는 1단계(총점 65점)에서 광주와 전남 후보지 각각 3곳 가운데 1곳씩을 선정한 뒤 2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심사를 포함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담은 2단계 심사(총점 35점)를 진행하게 된다.

20점 만점인 경제성은 부지조성 비용(7점), 부지제공 조건(13점)으로 이뤄져 있다. 또 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계획도 각각 7점과 8점씩 총 15점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이 한전공대 유지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대 7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예비후보지 2곳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제안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

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2곳의 입지가운데 1순위가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와 제안서대로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7년 5월 당시 조환익 한전 사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한전공대 설립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경4000조원에 달하며 (한전공대는) 그 분야”라며 “유망한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로, 한전공대는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설립 비용과 관련 “(대학 설립은) 개발, 영업, 해외사업, 연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사업의 투자 또는 출연”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역시 국가나 포스코가 부지 매입 및 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나주몽 전남대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은 “한전공대 설립을 결정하기는 과정에서 한전의 재정적자 가중, 사장 교체, 일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 등 내부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광주·전남이 경쟁하는 양상이 노출되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는 한전의 미래 동력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지역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인 만큼 한전공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미세먼지 속 뛰어 놀 곳 없는 학교 ▶6면
한국영화 100년 - 무성영화 이리랑 ▶18면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3만원 이상



종합 6호
30,900원



종합 7호
35,900원



종합 8호
40,900원



러 함빛 토탈솔루션
36,900원



프레시팝 베이직세트
39,900원

•3만원 이하



종합 1호
9,900원



종합 2호
13,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혜택은 아래 영업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